

쇼기의 원형 차투랑가

쇼기의 원형은 기원전 300 년경, 고대 인도의 갠지스강 상·중류 지방에서 즐겨졌던 반상유희라고 합니다. 이 반상유희는 차투랑가라고 불렸습니다. 초기의 차투랑가는 주사위를 사용하여 놀이하는 4 인제 쇼기였습니다. 그러나 4 명이 주사위를 사용하는 쇼기는 우연성이 강하고 게임으로서 결점이 많았기 때문에, 후에는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는 2 인제 쇼기로 변화해 갔습니다. 기물(장기말)의 형태는 단순한 것으로, 8 세기 아랍의 기물이 차투랑가 기물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